

# 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

## 코스피, 상승폭 축소했지만 외국인 선물 순매수 폭 확대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 한국 증시 장중 리뷰: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갖는 함의

#### • 코스피, 전강후약의 모습 그러나...

- 장 초반 상승폭을 키우며 1.5% 가까이 상승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며 강보합권 수준까지 밀려. 이는 1700억원 가까이 순매수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이 매도우위로 전환하기 때문

- 그러나 외국인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동시만기일(9일)을 앞두고 선물 순매수 규모를 확대(+4,450계약/14:30기준)하며 추가적인 하락폭은 제한하는 모습. 또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차익거래(현물매수+선물매도)가 유입되며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견고한 모습 보여

\* 특정주(14:30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4.9%, LG화학 +4.9%, SK바이오사이언스 +4.5%

- 만약 내일 동시 만기일에서 외국인의 선물 대규모 매수 롤오버가 나타날 경우 향후 지수 상승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어. 실제 외국인은 지난 9월 동시만기일 이후 3조원, 10월 말 이후로는 6조원에 가까운 현물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 아시아 시장 장중 리뷰: 지준율 인하 효과 기대감

#### • 정부의 전향적인 스탠스 변화에 커진 기대감

- 지난 6일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전일(7일)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지준율 50bp 인하라는 카드를 내밀어. 이번 지준율 인하 효과는 시중에 약 1.2조 위안(222조원)을 공급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이에 귀주모태주(600519.SH), 오량액(000858.SZ) 등 백주를 비롯한 소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 또한 기업별로 발표된 11월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며 닝더스다이(300750.SZ), 창신신소재(002812.SZ) 등 2차전지 밸류체인 강세

\* 11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비야디(002594.SZ) 9.12만대(YoY +253%), 광주자동차(601238.SH) 1.8만대(+96%)

- 향후 중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증시 유동성 및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 또한 헝다그룹으로 불거진 부동산 시장 리스크 역시 예상보다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

### 미 증시 전망: 실체 파악이 중요

#### • 화이자가 발표한 초기 연구 결과

- 화이자(PFE.US)는 자사 백신을 맞은 12명의 환자 혈액 샘플 테스트 결과를 공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중화항체 생성 능력은 41배 감소시킨다고 발표.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 만큼 전일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밝혔던 것처럼 '심각한 수준'의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

- 물론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백신 접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위·중증 및 치사율 감소'가 더 커. 이는 기존 실증 데이터에서 충분히 입증된 만큼 백신관이 밝힌 것처럼 전체적인 락다운 및 사회적거리두기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여

---

- 인플레이션 압력 낮아지는 여러 신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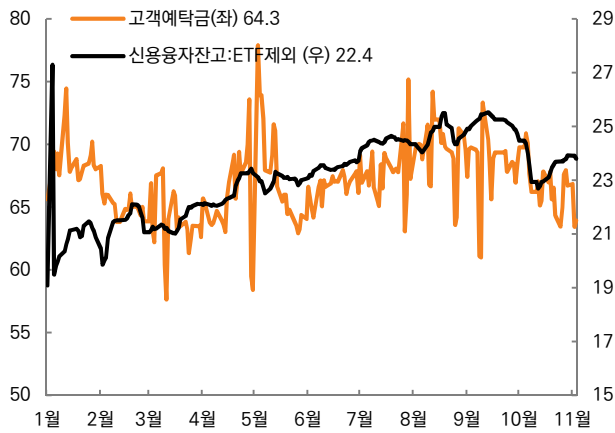
- 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경한 발언 때문. 그러나 이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실시간 반영해 발표하는 애틀란타 연준의 GDPNow는 4분기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8.6%로 전망

-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연준의 행보가 빨라질 수 있음을 강조.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 특히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와 상당한 동행성을 보이는 중국 제조업PMI 투입물가지수가 전월대비 급감하며 향후 생산자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던 시중 유동성(광의통화, M2)이 올해들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감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여. 블룸버그 역시 내년 중반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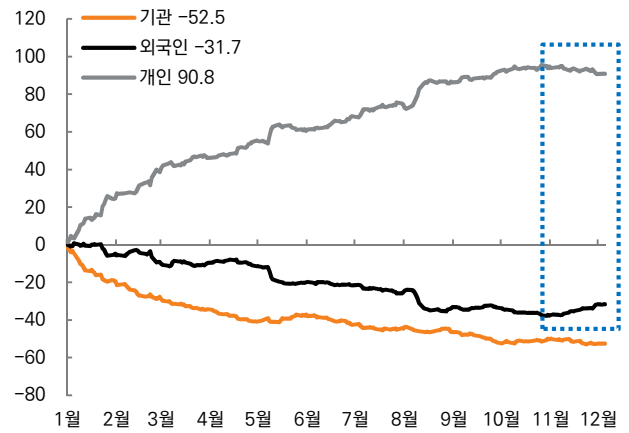
---

그림 1. 국내 증시 주변 자금 동향(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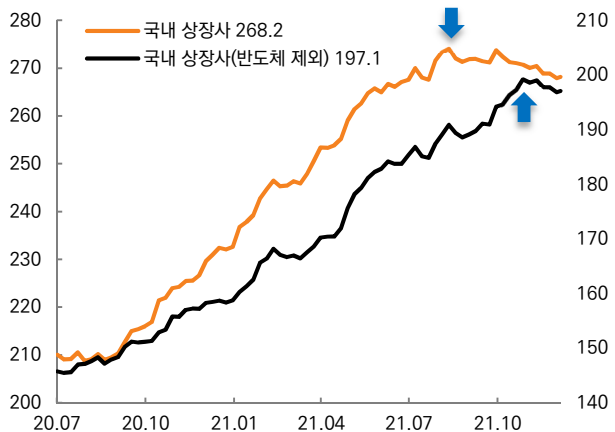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2. 올해 주체별 수급 현황 (누적,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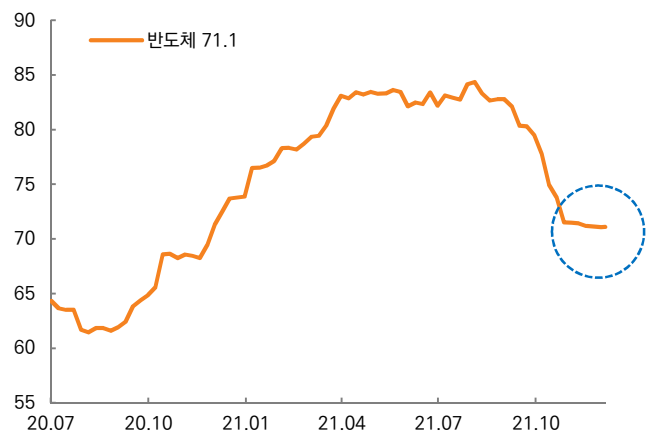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3. 국내 상장기업 2022년 영업이익의 전망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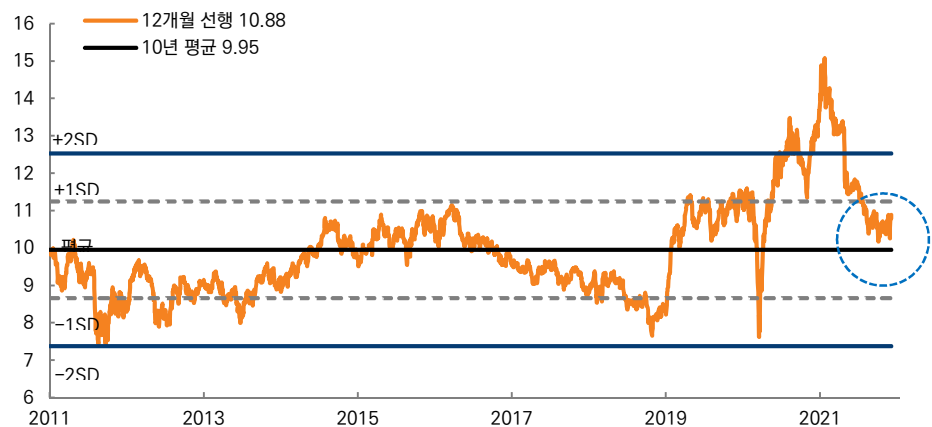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4. 반도체 업종 2022년 영업이익의 전망 (조원)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5. 코스피 200 P/E 밸류에이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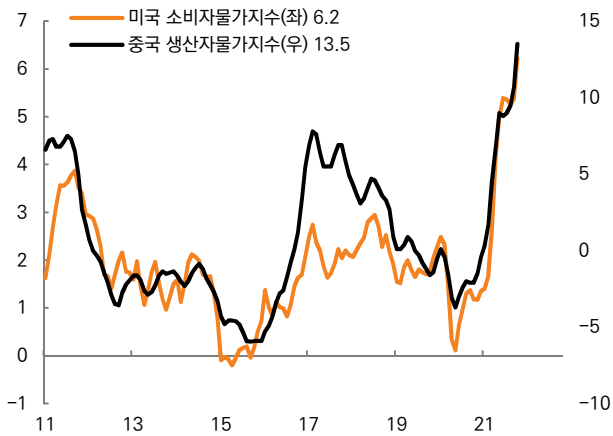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6. 달러/원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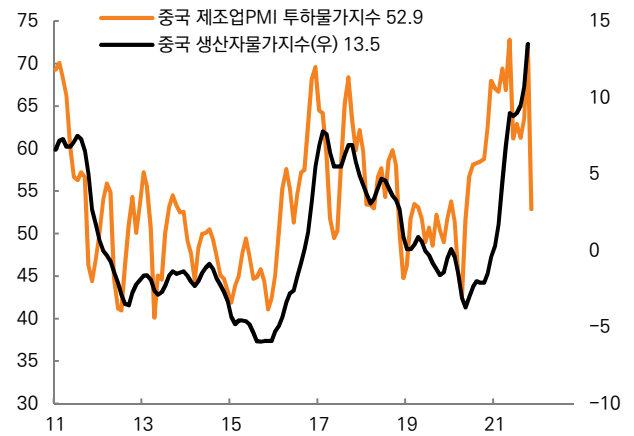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7. 미 CPI와 중 PPI 간 높은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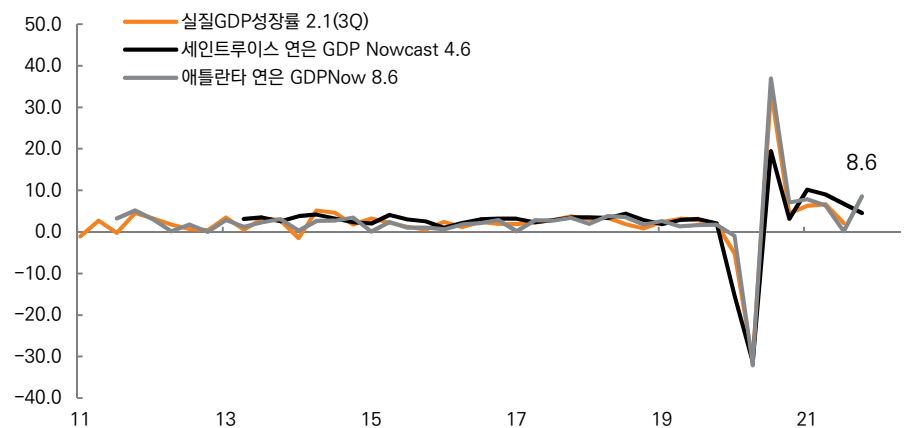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8. 커진 중국 PPI 둔화 압력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9.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



자료: FRED,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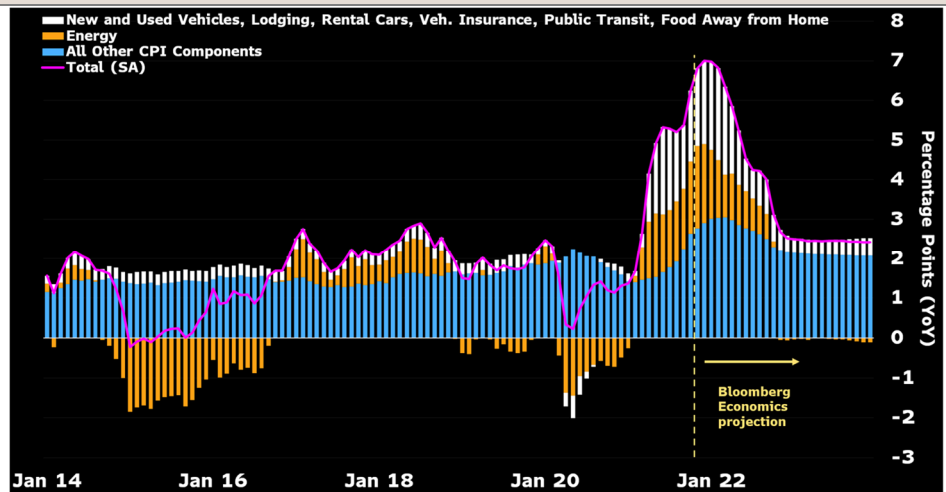
그림 10.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유동성(M2) 지표



주: 전년동월대비증감율 기준

자료: FRED,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11. 내년 중반이후 부터는 인플레이션 우려 크게 경감될 전망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